

‘토론 광장’식 교수법을 실험하다

김월희*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교수.

1. 교수법 개발의 동기

‘인문학 특성에 맞는 교수법이 과연 있을 수 있는가?’ 전공 특성별 교수 방법의 개발을 공모한다는 소식에 접했을 때 문득 든 생각이었다. 이른바 인문학이란 것이 ‘인간과 자연의 본원적인 것에 대한 고찰’을 그 본령으로 삼는 것이라면, 이러한 학문 특성에 맞는 교수법이라는 것이 과연 논리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성립 가능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스쳤던 것이다.

그러다 바로 이어 든 생각이 인문학 역시 학문의 하나로 먼저 연마한 사람으로부터 후학들에게 전수되며 이어져온 것이라면, 보다 효율적으로 전수하고 전달받을 수 있는 방법이란 것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인문학이란 학문 자체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교수법은 아닐지라도, 연마한 결과를 효과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보다 나은 ‘소통의 방식’은 가능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다.

예컨대 동양이나 서양 할 것 없이, 현자들의 깨우침은 ‘대화’라는 형식을 통해 주변과 후인들에게 전달되었다. 부처가 그러했고 또 공자가 그러했다. ‘영혼의 산파술’이라 칭송된 소크라테스의 대화술은 구상적인 세계부터 언어 너머에 존재하는 초월론적 세계에 대한 철인들의 통찰을 효과적으로 전파하였다. 사실 구텐베르크가 활자술을 발명하여 책을

널리 보급할 수 있게 되기 전까지, 동서를 막론하고 모든 지식은 이렇듯 입에서 귀로 전해졌던 것이다.

그런데 이를 ‘지금-여기’의 우리네 교육 현장에 적용한다는 것은 몽상에 불과하다. 예수의 제자가 12명이었던 것은 한 사람이 대화술을 기반으로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최대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공자는 제자들과 자기 집에서 ‘합숙’하면서 일상을 공유하며 그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지금,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언제부터인가 학문 특성이나 교학 목표와 상관없이 만병통치약인 양 강조됐던 토론식 수업이 그 유력한 대안이 아니었나싶다. 토론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대화술의 장점이었던 ‘쌍방향적’ 소통을 구현할 수 있다고 본 듯하다. 그러나 개인적인 체험에 기초한다면, 토론을 통한 쌍방향적 소통이 일어나는 경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았다. 설사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될 경우조차도 수강생의 소수만이 참여하고 말 때가 대부분이었다. 그렇다보니 수강생의 절대 다수가 오히려 수업에서 배제되는 전도된 현상이 벌어지곤 하였다.

만약 대화술이 인문학의 성과를 잘 전파할 수 있는 교수법이고, 그것의 후신이 토론식 교수법이라면, 토론식 교수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것이 ‘토론 광장’식 교수법을 고안하게 된 계기였다.

2. ‘토론 광장’식 교수법의 개요와 적용 실제

실제 수업 현장에서 토론식 교수법이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 이유 때문으로 여겨진다. 첫째는 토론 주제에 대한 토론 당사자의 전문성 결여이다. 이는 아무리 전공 수업이라 할지라도 지금으로부터는 어쩔 수 없이 안고 가야 하는 난제이기도 하다. 둘째는 상대적인 소수만이 토론에 참여하고, 절대 다수는 청중 혹은 방관자로 방치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효율적인 토론식 학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두 가지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곧 해당 주제에 대한 수준 있고 밀도 높은 이해와 수강생 절대 다수의 능동적인 토론 참여를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토론의 두 당사자가 주어진 여건에서 전문성을 최대한으로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자신의 견해 표명’, ‘토론 상대방에 대한 설득’, ‘청중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라는 세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해야 한다.

토론 주제에 대한 밀도 높은 이해를 기하기 위해서 활용한 방법은 수업조교와의 협동 학습이었다. 2개의 토론 조를 편성한 후 각각 다른 수업조교를 배치하였다. 학생들은 자기 조의 수업조교와 토론 주제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와 심화 학습을 수행하였다. 또한 상대 조의 발제문을 다각도로 분석함으로써 토론 전략을 함께 숙의토록 하였다(토론 조의 발제문은 실제 토론이 있기 일주일 전에 인터넷에 마련된 수업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하였다).



김일희 교수가 제2회 전공특성별 교수방법 강좌 개발 결과 발표회에서 ‘토론 광장’식 교수법을 소개하고 있다.

수강생 절대 다수의 토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활용한 방법은 ‘토론 광장’식 교수법이었다. 먼저 토론의 두 당사자에게 상대방의 설득보다도 청중의 설득을 보다 중시하도록 요구했다. 예컨대 승소의 열쇠는 상대측 검사(반대의 경우는 변호사)를 설득하는 데 있지 않고 배심원을 설득하는 데에 있는 것처럼, 토론의 두 당사자에 대한 평가를 청중의 의견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방식을 도입한 셈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적용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청중이 토론 자체에 집중하지 않은 채 임가응변식으로 토론 조를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담당교수는 청중으로서의 수강생에게 평가의 합리적이고도 과학적인 근거를 함께 요구했다. 청중이 토론의 두 당사자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준비한 내용부터 토론에 임하는 태도, 토론 전략 등에 대해 주목할 수밖에 없게 된다. 만약 청중이 조리 있고 체계적인 평가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담당교수는 청중에게 페널티를 부여한다는 복안도 마련하였다.

이렇게 준비를 한 후 실제 수업에서는 모두 세 차례에 걸쳐 ‘토론 광장’식 수업을 진행하였다. 수업 현장에서의 진행 방식은 다음과 같았다. 먼저 학기 시작 전 강의를 편성할 때부터 1주 3시간의 수업 형태로 하였다. 그리고 그 3시간을 다시 3부로 나누었다.

먼저 1부에서는 토론의 당사자인 두 패널이 각각 해당 주제에 대해 준비한 내용을 발표하고, 상대방이 준비한 내용에 대한 문제제기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각 토론 조는 발표 1주일 전까지 인터넷상에 마련된 수업 게시판에 준비한 내용을 미리 올려놓도록 했다. 2부는 두 조간의 토론을 위주로 진행하였다. 이때 청중에게는 청중의 자격으로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으로 배심원의 위상에서 두 토론 패널을 심사하도록 하였다. 3부에서는 두 토론 패널에 대한 청중의 평가와 이에 대한 토론 패널 간의 반론을 수행하였다. 말미에는 담당교수의 총평과 보충 강의를 진행하였다.

3. 성과와 한계

한 학기 동안 모두 세 차례에 걸쳐 '토론 광장'식 수업을 진행한 결과, 당초 기대대로 토론 주제에 대한 학생들(토론 당사자와 청중)의 장악 정도가 이전에 비해 증진됐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교과 내용에 대한 보다 폭넓고 속 깊은 이해가 가능했다는 점이 가장 큰 수확이었다. 그리고 거의 모든 학생을 토론에 참여케 했다는 효과도 거두었다.

그러나 몇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다. 첫째, 토론 시간을 잘못 예측했다. 그간의 수업에서 토론이 진행된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던 경험에 비추어 토론 시간을 가능한 적게 잡았는데, 실제로는 토론 당사자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다하지 못한 채 청중의 강평으로 넘어갔다. 이는 토론 주제에 대한 사전 준비가 나름대로 치밀해지다보니, 할 수 있게 된 말이 많아진 까닭으로 보인다.

둘째, 적절치 못한 토론 주제를 설정했다. 인문학적 전공 자체에 큰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작금의 현실에서, 가능하면 동기부여와 나아가 흥미 유발에 도움이 되게끔 하자는 의도가 너무 강한 나머지, 대결 구도로 쉬이 흐를 수 있는 주제를 잡은 것이 패착이었다. 그 결과 토론이 표피적·현상적인 차원의 대결 구도에 사로잡혀 보다 심도 있는 논의에 도달치 못하였다. 여기에는 토론의 사회를 맡은 담당교수와 토론에 참여한 학생 모두의 토론 문화에 대한 경험 부족도 한몫한 듯하다.

이외에도 작다 할 수 없는 문제점이 더 있었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제도적 차원에서의 적절한 지원과 담당교수의 열정만 있다면, 지금의 대학 현실에서도 토론식 수업의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다. 